

블랑팡, 미쉐린 가이드와 파트너십을 맺다

블랑팡은 미식가의 바이블, 미쉐린 가이드와의 파트너십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 30년 이상 파인 워치메이킹과 파인 다이닝의 세계를 연결해온 긴밀한 관계를 감안할 때 향후 3년간 이어질 이번 글로벌 파트너십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몇몇 유명 요리 컨테스트의 공식 타임키퍼이며, 정기 간행물인 "레트르 뒤 브라쉬(Lettres du Brassus)"에서 세계 최고 레스토랑들을 리뷰하고 있는 블랑팡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명 셰프들의 손목을 장식해왔다. 100명 이상의 미쉐린 스타 셰프들을 비롯하여 많은 과거와 현재의 친구를 보유한 블랑팡은 새로운 협업을 통해 세계적 명성의 미쉐린 가이드와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블랑팡과 미쉐린 가이드는 함께 힘을 모아 탁월함, 열정, 전문성의 기준을 끌어올리려 애쓸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폭넓은 파트너십은 전 세계 미식 부문에 있어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매해 상하이에서부터 파리, 뉴욕, 도쿄 등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이벤트와 가이드가 오프 퀴진(haute cuisine)을 기리게 될 것이다.

오프 올로제리(Haute Horlogerie)와 오프 퀴진(haute cuisine)은 모두 상당한 정교함과 세심함을 요구한다. 블랑팡 타임피스와 요리의 품질 모두 전통, 창조성, 정통성을 세련되게 버무리고 정확하게 조정해 나온 결과물이다. 워치메이커와 훌륭한 셰프는 모두 다양한 부품과 재료를 조합해 마스터피스를 창조해내는 매혹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성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준비 과정에서 시간(time)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1735년부터 약 300년에 걸쳐 시간을 충실히 측정해온 블랑팡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탁월한 재능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다.

블랑팡, 오프 퀴진의 워치메이커

1735년 예한-자크 블랑팡이 창립한 블랑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다. 혁신의 전통을 고수하고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을 발명해온 블랑팡은 끊임없이 워치메이킹의 한계를 깨부수며 워치메이킹 예술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지로 올려놓았다.

오프 올로제리와 오프 퀴진 간의 조우, 그리고 블랑팡에게 있어 삶을 즐기는 방법인 '아르 드 비브르(Art of Living)' 간의 조우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섬세한 장인정신,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는 일반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전통과 유산을 존중하는 측면 모두에서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블랑팡이 수상 기록을 보유한 세계 유수 셰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이렇다. 이는 오프 퀴진에 대한 지금과 같은 열렬한 관심이 있기 전인 1986년 시작되었다. “세계 최고의 셰프(World’s Best Chef)”상을 수상한 블랑팡의 프렌드, 프레디 지라르데(Frédy Girardet)에게 특별한 인그레이빙을 담은 시계를 선사한 것이다. 3년 후 블랑팡은 폴 보퀴즈(Paul Bocuse)와 조엘 로부송(Joël Robuchon)이 “셰프 오브 더 센츄리(Chefs of the Century)”가 되었을 때 그들 모두에게 수상을 기념하는 내용을 새긴 시계를 다시 한번 선사하며 경의를 표했다. 이후 블랑팡의 친구 범주는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현재 그 리스트에는 스페인 셰프 마르틴 베라사테기(Martín Berasategui), 스위스의 에드가 부비에(Edgar Bovier), 프랑스 오베르뉴(Auvergne) 출신의 줄리앙 로이어(Julien Royer) 등 미쉐린 스타를 획득한 셰프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다.